

유란시아서

<< [제 80 편](#) | [부분](#) | [내용](#) | [제 82 편](#) >>

제 81 편

현대 문명의 발전

81:0.1 (900.1) 칼리가스티아와 아담의 임무에서 예상했던, 세상 개선 계획이 실패함으로 생긴 변동과 상관없이, 인간의 진보와 종족의 발전을 재는 눈금으로 볼 때 인종의 기본 유기체의 진화는 종족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진화는 늦출 수 있어도 멈출 수 없다.

81:0.2 (900.2) 보라 인종의 영향은, 계획했던 것보다 수가 적기는 했어도 문명의 진보를 낳았고, 이 영향은 아담 시절 이후에, 인류가 거의 1백만 년 동안, 이전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진보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 문명의 요람

81:1.1 (900.3) 아담 시절 이후로 약 3만 5천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은 서남 아시아에 있었고, 나일 강 유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조금 북쪽에 아라비아 북부를 가로지르고,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투르키스탄으로 계속 뻗었다. 그리고 기호는 그 시대에 문명을 세우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81:1.2 (900.4) **아담** 족속의 초기 이동을 그치게 한 것은 북 **아프리카**와 서 **아시아**에 있었던 큰 기후 및 지질학적 변화였으며, 이것은 확대된 지중해로 **유럽** 방향에서 그들을 막고, 이민의 물결을 북쪽과 동쪽으로, **투르키스탄**으로, 빼돌렸다. 육지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그칠 때가 되어, 기원전 약 15,000년에, 동쪽에는 **아시아**에서 산맥으로, 서쪽에는 **유럽**에서 확대되는 숲으로 인하여 아직도 갇혀 있던 **안드** 족속의 문화적 효소와 생물학적 비축을 제외하고, 문명은 세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정체되었다.

81:1.3 (900.5) 기후의 진화는 이제 모든 다른 노력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한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을 버리고 더 진보된 동물 기르기와 농사 직종을 가지라고 강요한다. 진화는 느릴까 싶지만, 무섭게 효과가 있다.

81:1.4 (900.6) 초기의 농사꾼들이 노예들을 아주 널리 이용했기 때문에, 농부는 예전에 사냥꾼과 목자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땅을 경작하는 것은 천하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흙을 만지는 일은 저주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오히려 흙으로 수고하는 것은 모든 축복 가운데 으뜸이다. **카인**과 **아벨**의 시절에도 목축 생명을 바치는 것을 농산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이 여겼다.

81:1.5 (900.7) 사람은 보통 사냥꾼으로부터, 목자의 시기를 거쳐서 바뀌어 농사꾼으로 진화했으며, 이것이 또한 **안드** 족속 사이에 참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흔하게, 기후의 필요에 따른 진화적 강요가 부족 전체를 사냥꾼에서 성공적 농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사냥에서 농사로 바로 넘어가는 이 현상은, 보라 핏줄과 높은 정도로 종족이 혼합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81:1.6 (901.1) 진화 민족들(특히 중국인)은, 어쩌다가 축축하게 된 씨나 죽은 자에게 먹을 것으로 무덤에 둔 씨가 싹트는 것을 지켜보고서,

씨를 심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서남
아시아에 두루, 기름진 강 바닥과 인접한 평야를 따라서, **안드** 족속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개량된 농업 기술을 쓰고 있었고, 그 선조는 둘째
동산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과 채소 가꾸기를 주요한 직업으로 삼았다.

81:1.7 (901.2) 몇천 년 동안 **아담**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위쪽
경계에 있는 고지 전역에 걸쳐서, **동산**에서 개량한 밀과 보리를
심었다. **아담**과 **아담손**의 자손들은 여기서 만나서 무역을 하고,
사회적으로 섞였다.

81:1.8 (901.3) 생활 조건이 이렇게 강제로 변화된 것은 그렇게 많은
비율의 인류로 하여금 식생활 관습에서 잡식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밀 · 쌀 · 채소로 된 식사(食事)와 가축의 고기를 섞어 먹는
것은 이 고대 민족들의 건강과 활력 면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표시하였다.

2. 문명의 도구

81:2.1 (901.4) 문화의 성장은 문명의 도구(道具)가 발전하는 데 달려
있다. 사람이 야만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이용한 도구는 그 도구가 더
높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해방하는 바로 그 한도까지
효과가 있었다.

81:2.2 (901.5) 사회적 면에서 문화가 싹트고 진보가 시작되는 현대의
장면에서 지금 사는 너희는, 사회와 문명에 관하여 생각할 여분의
여력이 실제로 조금 있는데, 너희의 옛 선조들이 깊이 돌이켜보고

사회적인 생각을 하는 데 바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도무지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81:2.3 (901.6) 인간의 문명에서 처음 4대 진보는 다음과 같았다:

- 81:2.4 (901.7) 1. 불을 다루기.
- 81:2.5 (901.8) 2. 동물 길들이기.
- 81:2.6 (901.9) 3. 포로를 노예로 만든 것.
- 81:2.7 (901.10) 4. 사유(私有) 재산.

81:2.8 (901.11) 불은 처음으로 큰 발견이었고 궁극에 과학 세계에 이르는 문을 열었지만, 이 점에서 원시인에게 거의 가치가 없었다. 원시인은 자연의 원인이 보통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81:2.9 (901.12) 어디에서 불이 왔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안돈**과 부싯돌의 단순한 이야기는, 어떤 **프로메테우스**라는 자가 어떻게 불을 하늘에서 훔쳤는가 하는 전설로 곧 대체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이 몸소 이해하는 범위 바깥의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하여 초자연적 설명을 찾으려고 애썼다. 많은 현대인도 계속 이렇게 한다. 이른바 자연 현상을 비인격 현상으로 만드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 원인을 찾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연구가 현대 과학을 낳았다: 그런 연구가 점성학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술(醫術)로 바꾸었다.

81:2.10 (901.13) 기계가 생기기 전 시대에,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의 사용이었다. 동물을 길들인 것은 사람의 손에 살아 있는 연장을 쥐어 주었고, 동물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농업과 수송을 위하여 길을 준비했다. 이러한 동물이 없이, 사람은 원시 상태로부터 후일의 문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었다.

81:2.11 (902.1) 길들이기에 가장 적당한 동물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앙 지역에서 서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발견되었다. 이것이 어째서 세계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그 위치에서 문명이 더 빨리 진보했는가 하는 한 이유였다. 이 동물 중에 다수는 두 번이나 이전에 길들인 적이 있었고, **안드** 족속 시대에 그 동물을 다시 한 번 길들였다. 그러나 개는 아주 오래오래 전에, 청인이 받아들이는 뒤로 늘 사냥꾼과 함께 남아 있었다.

81:2.12 (902.2) **투르키스탄의 안드** 족속은 말을 널리 길들인 첫 민족이었고, 이것이 어째서 그들의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배했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기원전 5000년이 되자, **메소포타미아 · 투르키스탄 · 중국의 농부들은 양 · 염소 · 소 · 낙타, 말 · 가금 ·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소 · 낙타 · 말 · 야크를 짐 싣는 짐승으로 이용했다. 바로 사람은 한때 짐을 부리는 짐승이었다. 청인종의 어느 통치자는 한때 그의 짐꾼 거류지에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81:2.13 (902.3) 노예 제도와 토지를 사유(私有)하는 제도는 농업과 함께 왔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생활 수준을 높여 주었고, 사회의 문화를 누릴 여가를 더 마련해 주었다.

81:2.14 (902.4) 야만인은 자연에 복종하는 노예이지만, 과학 문명은 천천히 인류에게 늘어나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동물 · 불 · 바람 · 물 · 전기,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근원을 통해서, 사람은 쉴 사이 없이 수고할 필요에서 자신을 해방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방할 것이다. 기계를 풍부하게 발명함으로써 생기는 일시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러한 기계적 발명으로부터 얻게 되는 궁극의 이득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여가를 가질 때까지, 문명은 세워지기는커녕, 결코 번영할 수 없다.

81:2.15 (902.5) 사람은 먼저 은신처를 단지 취하고, 바위 선반 밑에 살든지 동굴에 거주했다. 다음에 나무와 돌 같은 천연 재료를 가족 움막을 짓는 데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창조 단계에 들어갔고, 벽돌과 기타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을 배웠다.

81:2.16 (902.6) **투르키스탄** 고지의 민족들은 현대에 가까운 종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 집들은 **아메리카**에 개척하여 정주한 사람들이 초기에 지은 통나무 집과 아주 다르지 않았다. 평야에 두루, 인간의 거처는 벽돌로 지었으며, 나중에는 구운 벽돌을 썼다.

81:2.17 (902.7) 강가에 살던 이전의 종족들은 땅에, 동그라미 안에 높은 장대들을 세워서 움막을 지었다. 꼭대기들을 한데 모아서, 움막을 위한 뼈대를 만들었고, 이것을 가로지르는 갈대로 엮었으며, 작품 전체가 엮어진 큰 광주리 같았다. 다음에 이 구조물에 진흙 칠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햇빛에 말린 다음, 아주 쓸모 있는 거처, 비바람에 견디는 거처가 되곤 했다.

81:2.18 (902.8) 이 초기의 움막으로부터, 나중에 온갖 종류의 광주리를 짜는 생각이 따로 생겨났다. 한 집단 사이에서, 도기(陶器)를 만드는 생각은 이 장대 틀을 젖은 진흙으로 바르는 효과를 지켜보는 데서 생겨났다. 구워서 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은 진흙으로 바른 이 원시 움막 중 하나가 어쩌다가 타는 바람에 발견되었다. 옛 시절의 여러 기술은 초기 민족들의 일상 생활에 따르는 우연한 일에서 생기는 적이 많았다. 적어도 이것이, **아담**이 올 때까지, 인류가 진화하는 발걸음에 관하여 거의 전적으로 참말이었다.

81:2.19 (903.1) 약 50만 년 전에 **영주**의 참모진이 도기를 처음으로 소개했지만, 진흙 그릇을 만드는 것은 15만 년이 넘도록 실지로 그쳤다. 오로지 그 만(灣)의^[82] 바닷가에, **수메르** 이전의 **놏** 족속이 계속해서 진흙 그릇을 만들었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담**의 시절에 부활되었다. 이 기술의 전파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중앙 **아시아**의 사막 지역이 뻗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고, 개량된 기술이 연달아 파도를 이루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깥으로 동반구에 퍼졌다.

81:2.20 (903.2) 이 **안드** 시대의 문명을 그들의 도기나 다른 예술의 단계로 반드시 추적할 수는 없다. 인간이 진화하는 순조로운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 이 두 체제로 인하여 대단히 까다로워졌다. 후일의 화병과 도구가 더 순수한 **안드** 민족들이 예전에 만든 작품보다 못한 경우가 흔히 생긴다.

3. 도시와 제조업과 상업

81:3.1 (903.3) **투르키스탄**의 기름지고 흰히 트인 초원의 땅, 사냥하며 동물이 풀 뜯는 땅이 기후의 변화로 없어진 것은 기원전 12,000년 무렵에 시작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투박한 제조업에 의존하도록 강요하였다. 더러는 길들인 가축 떼를 기르는 일로 발길을 돌렸고, 더러는 농사꾼이 되거나 물에서 자라는 먹을거리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지만, **안드** 족속에서 상급 부류의 지적 존재들은 상업과 제조업을 선택했다. 전체 부족(部族)이 한 가지 산업의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하였다. **나일** 강 유역으로부터 **힌두 쿠시**까지, 그리고 **간지스** 강으로부터 황하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부족들의 주요한 사업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되었고, 상업은 부업이 되었다.

81:3.2 (903.4) 무역, 그리고 원자재를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의 증가는 초기의 얼마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직접 도움이 되었고, 이 공동체들은 문화와 문명의 기술을 퍼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광범위한 세계 무역 시대가 오기 전에, 사회의 공동체는 부족 단위였다 — 확대된 가족 집단이었다. 무역(貿易)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서로 친교하도록 이끌었고, 이처럼 문화의 더 빠른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81:3.3 (903.5) 약 1만 2천 년 전에, 독립된 도시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원시 무역과 제조업을 하는 이 도시들은 반드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지대에 둘러싸여 있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으로 산업이 촉진된 것이 참말이지만, 너희는 옛날의 도시 생활의 세련된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초기의 종족들은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깨끗하지 않았고, 보통의 원시 공동체는 단지 흙과 쓰레기가 쌓인 결과로서, 25년마다 30에서 60센티미터가 높아졌다. 이 오래 된 도시들 가운데 어떤 것은 굽지 않은 진흙 오두막이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둘레의 땅보다 아주 빨리 높아졌고, 옛날의 폐허 바로 위에 새 주거(住居)를 짓는 것이 풍습이었다.

81:3.4 (903.6) 금속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이 초기의 산업 및 상업 도시 시대의 특성이었다. 너희는 **투르키스탄**에서 기원전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문화를 이미 발견하였고, **안드** 족속은 마찬가지로 철 · 금 · 구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더 진보된 문명의 중심들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조건이 아주 달랐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와 같은 아무런 뚜렷한 시기가 없었다. 모두 세 시기가 한꺼번에 다른 지역에서 존재했다.

81:3.5 (904.1) 금은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다닌 금속이었다. 금은 작업하기 쉬웠고, 처음에는 장식품으로만 쓰였다. 구리가 다음에 이용되었으나, 주석(朱錫)과 섞어서 더 단단한 청동을 만들기까지 널리 쓰이지 않았다. **투르키스탄의 아담손**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 만드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고지에 구리 광산이 마침 주석 매장 옆에 있었다.

81:3.6 (904.2) 투박한 제조업과 초기 산업이 나타나자, 상업은 문화를 가진 문명의 보급에 재빨리 가장 유력한 영향이 되었다. 육지와 바다를 거쳐 무역의 길이 열린 것은 문명이 섞이게 할 뿐 아니라, 여행, 그리고 문화의 혼합을 크게 수월하게 만들었다. 기원전 5000년이 되자 문명화된 땅과 절반 문명화된 땅에 두루, 말이 일반적으로 쓰였다. 이 후일의 종족들은 길들인 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4륜차와 2륜 전차(戰車)를 가지고 있었다. 오랜 세월 전에 바퀴가 쓰였지만, 이제 그렇게 장비를 갖춘 차량이 상업과 전쟁, 두 군데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81:3.7 (904.3) 여행하는 무역상과 떠돌아다니는 탐험가는 모든 다른 영향력을 합친 것보다 유사(有史) 이후 문명의 진보에 더 많이 기여했다. 군사적 정복·식민화, 그리고 후일의 종교들이 조장한 선교 사업도 또한 문화 보급에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무역 관계에 2차적이었고, 무역 관계는 산업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과 과학으로 인하여 늘 가속되었다.

81:3.8 (904.4) **아담**의 핏줄이 인간 종족에 주입된 것은 문명의 걸음을 빠르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모험과 탐험의 성향을 크게 자극했고, 그 결과로 **안드** 족속의 빨리 번식하는 혼혈 후손이 **유라시아**와 북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이내 차지하였다.

4. 섞인 종족

81:4.1 (904.5) 밝아오는 유사 시대와 접촉이 생김에 따라서, **유라시아** 전체, 북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群島)에 인류의 복합 종족들이 퍼졌다. 오늘날 이 종족들은 **유란시아**의 다섯 가지 기본 인간 혈통이 섞이고 다시 섞인 결과로 생겨났다.

81:4.2 (904.6) **유란시아** 종족들은 각자 어떤 구별되는 신체의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아담** 족속과 **노트** 족속은 얼굴이 길었고, **안돈** 족속은 얼굴이 넓었다. **산킵** 종족들은 중간 얼굴이었고, 황인과 청인은 넓적 얼굴인 편이었다. 청인 종족들은, **안돈** 족속의 핏줄과 섞였을 때, 뚜렷이 넓적 얼굴이 되었다. 2차 **산킵**들은 중간에서 긴 편의 얼굴이었다.

81:4.3 (904.7) 이 두개골 규격이 종족의 기원을 해독(解讀)하는 데 쓸모가 있어도, 통틀어서 뼈대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의 초기 발전에는 최초로 다섯 가지 뚜렷이 다른 종류의 뼈 구조가 있었다:

- 81:4.4 (904.8) 1. **안돈** 부류, **유란시아** 토착민.
- 81:4.5 (904.9) 2. 1차 **산킵**, 홍인 · 황인 · 청인.
- 81:4.6 (904.10) 3. 2차 **산킵**, 주황인 · 녹색인 · 남색인.
- 81:4.7 (904.11) 4. **노트** 족속, 곧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후손.
- 81:4.8 (904.12) 5. **아담** 족속, 보라 인종.

81:4.9 (904.13) 이 5대 종족 집단이 널리 서로 섞임에 따라서, 계속된 혼합은 **산킵** 유전의 우성(優性) 때문에 **안돈** 부류를 가리는 경향이

있었다. **라프란드인**과 **에스키모인**은 **안돈** 종족과 **산깅** 청인 종족이 혼합된 것이다. 그들의 뼈 구조는 토착 **안돈** 부류를 간직하는 것에 아주 가깝다. 그러나 **아담** 족속과 **놏** 족속은 다른 종족들과 아주 섞여서, 오직 일반화된 **코카서스** 계급으로만 탐지할 수 있다.

81:4.10 (905.1) 따라서, 대체로, 지난 2만 년 동안에 쌓인, 사람의 유물을 파헤침에 따라서, 다섯 가지 최초의 종류를 똑똑히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뼈 구조의 연구는 인류가 이제 대략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81:4.11 (905.2) 1. 코카서스 인종 — **놏**과 **아담**의 핏줄이 **안드** 족속과 혼합되었는데, 1차와 (얼마큼) 2차 **산깅**과 혼합되어, 그리고 **안돈** 족속과 상당히 교배하여 더 수정되었다. 서양의 백인 종족들은, 얼마큼의 인도인 및 **투란**인 종족들과 함께, 이 집단에 속한다. 이 구분에서 통일되는 요소는 많은 적든 **안드** 족속의 유전이 있는 것이다.

81:4.12 (905.3) 2. 몽고 인종 — 1차 **산깅** 부류이며, 최초의 홍인과 황인과 청인 종족을 포함한다. 중국인과 **아메리카 인디안**이 이 무리에 속한다. 유럽에서 몽고 인종 부류는 2차 **산깅**과 **안돈** 족속과 혼합됨으로 수정되고, **안드** 족속의 주입으로 더욱 수정되었다. **말레이**와 기타 **인도네시아** 민족들이 이 분류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비율의 2차 **산깅** 피를 지니고 있다.

81:4.13 (905.4) 3. 흑색 인종 — 2차 **산깅** 종류는 최초에 주황 · 녹색 · 남색 종족들을 포함했다. 이것은 흑인이 가장 잘 설명하는 부류이며, **아프리카**와 인도와 **인도네시아** 도처에, 2차 **산깅** 종족들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발견될 것이다.

81:4.14 (905.5) 중국 북부에는 **코카서스** 종류와 몽고 종류가 얼마큼 섞였다. **레반트**에서는 **코카서스**와 흑색 인종이 서로 섞였다. 인도에서는, 남 **아메리카**와 같이, 모두 세 종류가 대표된다. 살아남은 세 부류의 골격 특징은 아직도 지속하며, 오늘날 인간 종족들의 후기 선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문화가 있는 사회

81:5.1 (905.6)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가 있는 문명은 반드시 상관되지 않는다. 어느 시대라도 유기체의 진화는 문화가 퇴폐하는 한 가운데서도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인간 역사를 조사했을 때, 결국, 진화는 원인이고, 문화는 결과로서 관계됨을 관찰할 것이다. 진화는 문화가 없이도 진행될지 모르지만, 문화가 있는 문명은 먼저 종족이 진보하는 적당한 배경이 없이 번영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인간 사회가 진보하는 데 낯선 문명의 기술을 하나도 들여오지 않았으나, **아담**의 피는 종족들의 타고난 능력을 확대했고,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진보하는 그 걸음을 가속하였다. **아담**을 수여한 것은 종족들의 두뇌력을 개선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크게 재촉하였다.

81:5.2 (905.7)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길들이고, 건축을 개량함으로 인류는 살기 위한 끊임없는 최악의 투쟁을 차츰 피했고, 사는 과정을 무엇으로 즐겁게 만드는가 찾으려고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꾸 높아지는, 물질적 편안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수고의 시초였다. 제조업과 산업을 통해서, 사람은 필사 생활에서 쾌락의 성분을 차츰 키우고 있다.

81:5.3 (906.1) 그러나 문화적 사회는 날때부터 모든 사람이 공짜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온전히 평등한 물려받은 특권을 주는 클럽, 큰 자선 클럽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회는 높고 늘 진보하는, 지상의 일꾼들의 동업 조합이며, 세상을 후세에 자식과 손자들이 살고 진보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귀족 일꾼만 그 계열로 받아들인다. 이 문명 조합은 비싼 가입비를 받아내고, 엄격하고 세찬 훈련을 부과하며, 찬성하지 않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나 무거운 벌을 내리고, 한편 공통된 위험과 종족의 위협에 대하여 더 안전해진 것을 제외하고, 개인의 방종이나 특권을 거의 주지 않는다.

81:5.4 (906.2) 사회적 관계는 생존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며, 사람들은 이 보험이 이로움을 깨달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개인의 자유를 단축하는 보험료를 기꺼이 내며, 사회는 이러한 늘어난 집단 보호에 대한 값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낸다. 잘라 말하면, 오늘날 사회의 구조는 시행 착오로 생긴 보험 계획이며, 이것은 인류의 초기 체험의 특징을 나타내는, 끔찍하고 반사회적 조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81:5.5 (906.3) 이처럼 사회는 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 자본과 발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 해방, 경찰의 규제를 통해서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는 계획이다.

81:5.6 (906.4) 힘이 정의(正義)를 낳지는 않으나, 힘은 뒤잇는 각 세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집행한다. 정부의 주요한 임무는 권리를 규명하고, 계급의 차이를 정당하고 공평하게 규제하며, 법의 통치 밑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권리는 사회적 임무와 결합되어 있다. 집단의 특권은 보험 작용이며, 이것은 집단에게

봉사하는 힘겨운 보험료 전액을 내라고 어김없이 요구한다. 개인의 권리만 아니라 집단의 권리는, 성(性) 성향의 규제를 포함하여, 보호해야 한다.

81:5.7 (906.5) 집단의 규제에 지배를 받는 자유는 사회의 진화에서 정당한 목표이다. 제한 없는 자유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인간 지성들이 지어낸 헛되고 환상 같은 꿈이다.

6. 문명의 유지

81:6.1 (906.6) 생물학적 진화는 늘 앞으로 나아갔지만, 많은 문화적 진화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파도를 지어 나갔으며, 이러한 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순수 혈통을 가진 **아담** 후손 전체가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강화하려고 마침내 떠나갈 때까지, 연달아 약화되었다. 종족들은 완전히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정도까지 섞였다. 문화가 천천히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리고 이 문명은 유지되고 양육(養育)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문화의 새 근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문명이 진화하는 느린 걸음에 활력을 주고 이를 자극할 **안드** 족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81:6.2 (906.7) 지금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문명은 다음 요인에서 생겨났고, 또 그 요인에 달려 있다:

81:6.3 (906.8) 1. 자연 상황. 물질 문명의 성질과 범위는 대체로 소용되는 자연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기후 · 날씨, 그리고 수많은 물리적 조건은

문화의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81:6.4 (907.1) **안드** 족속의 시대가 열렸을 때, 온 세계에 광활하고 비옥하고 탁 트인 사냥 지역이 오직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북 **아메리카**에 있었고, 거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퍼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투르키스탄**의 북쪽에 있었고, 그 일부는 **안돈** 황인이 차지했다. 서남 **아시아**에서 우수한 문화가 진화한 결정적 요인은 종족과 기후였다. **안드** 족속은 위대한 민족이었으나, 그들 문명의 과정에 결정적 요인은 **이란 · 투르키스탄 · 신장**이 더욱 건조해진 것이었고, 이것이 자꾸 메말라 가는 그들의 땅에서 생계를 잇는 새롭고 진보된 방법을 발명하고 채택하도록 강요했다.

81:6.5 (907.2) 여러 대륙의 지형, 그리고 달리 땅이 배치된 상황은 평화나 전쟁을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유란시아** 사람 중에 극소수가, 북 **아메리카**의 종족들이 누려 왔던 것 같이 계속하여 방해 받지 않고 발전할 유리한 기회를 누렸다 — 그들은 넓은 대양(大洋) 때문에 실지로 사방에서 보호를 받았다.

81:6.6 (907.3) 2. 자본재. 문화는 결코 빈곤한 조건 밑에서 발달하지 않는다. 여가는 문명의 진보에 필수이다. 도덕적 · 영적 가치가 있는 개인의 인품은 물질적 부(富)가 없는 가운데 얻을 수 있지만, 문화를 가진 문명은 오로지, 포부와 더불어 여가를 허락하는 물질적 번영이 있는 조건에서만 생긴다.

81:6.7 (907.4) 원시 시대의 **유란시아**에서, 인생은 심각하고 진지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건강에 좋은 열대 기후를 향하여 항상 떠다니는 성향이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투쟁과 그침 없는 수고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이 따듯한 거주 지대는 극심한 생존 투쟁을 벗어나 얼마큼 한숨 돌리게 했지만, 이렇게 편안을 추구한 종족과 부족들은

피땀 흘려 벌지 않은 여가를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이용하는 일이 드물었다. 머리를 써서 수고함으로 노력을 줄이고, 노동 일수(日數)를 줄임으로 땅으로부터 생계 얻는 것을 배우고, 것처럼 잘 벌어들이고 유익한 여가를 누릴 수 있었던 종족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변함없이 사회의 진보가 생겼다.

81:6.8 (907.5) 3. 과학 지식. 문명의 물질적 면은 반드시 과학적 자료가 쌓이기를 기다려야 한다. 활과 화살을 발견하고 동력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뒤에, 사람이 바람과 물의 사용을 배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증기(蒸氣)와 전기의 이용이 뒤따랐다. 식물 짜기와 도기, 동물 길들이기, 금속 가공 뒤에는, 글을 쓰고 인쇄하는 시대가 따랐다.

81:6.9 (907.6) 지식은 힘이다. 발명은 반드시 세계적 규모로 문화의 발전이 가속되는 것보다 앞서 간다. 과학과 발명은 무엇보다도 인쇄기로부터 이익을 보았고, 이 모든 문화 활동과 발명 활동의 상호 작용은 문화가 진보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였다.

81:6.10 (907.7) 과학은 사람에게 수학이라는 새 언어의 사용을 가르치며, 엄밀한 선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훈련시킨다. 과학은 또한 오류를 없앴으로 철학을 안정시키며, 한편 미신을 없앴으로 종교를 깨끗하게 한다.

81:6.11 (907.8) 4. 인간 자원. 노동력은 문명을 퍼뜨리는 데 필수이다. 모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가 많은 민족은 수가 적은 종족을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를 어느 선까지 늘이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막지만, 계속된 성장이 자살이 되는 그러한 인구 증가의 한계가 있다. 정상 인구 밀도의^[83] 적정 수준을 넘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생활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침투나 군사적 정복, 곧 강제로 점령하여 영토의 경계가 즉시 확장됨을 뜻한다.

81:6.12 (908.1) 너희는 때때로 전쟁의 참화에 충격을 받지만, 사회와 도덕이 발전하는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큰 무리의 필사자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행성에서 그러한 번식과 더불어 곧 인구의 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사람이 사는 세계들의 대부분은 작다. **유란시아**는 평균이며, 아마 크기가 좀 작다. 민족의 인구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은 문화를 향상시키고 전쟁을 막는다. 그리고 성장을 그칠 때를 아는 나라는 현명한 나라이다.

81:6.13 (908.2) 그러나 지하 자원이 가장 풍부한 대륙과 가장 앞선 기계 장비가 있어도 그 민족의 지능이 쇠퇴한다면,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교육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참된 문화에 필수이며,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날 때부터 총명한 남녀들이 지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한 민족은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참으로 지혜롭게 될 수도 있다.

81:6.14 (908.3) 5. 물질 자원의 효율성. 많은 것이 자연 자원, 과학 지식, 자본재, 인간의 잠재성을 이용하는 데 사람이 얼마큼 지혜를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 초기 문명에서 주요한 요인은 사회의 지혜로운 군주가 행사하는 세력이었다. 원시인은 같은 시대의 우수한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그에게 떠맡긴 문명을 가졌다. 잘 조직되고 우수한 소수 (小數)가 대체로 이 세상을 다스려 왔다.

81:6.15 (908.4) 힘이 무엇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힘은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결정한다. **유란시아**는 겨우

요즘에야 사회가 힘과 정의(正義)의 윤리를 기꺼이 논의하려는 점까지 도달했다.

81:6.16 (908.5) 6. 언어의 효율성. 문명의 보급은 언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살아 있고 성장하는 언어는 문명화된 생각과 계획의 팽창을 보장한다. 초기 시절에 중요한 진보는 언어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발전하는 생각의 표현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어의 계속된 발전이 크게 필요하다.

81:6.17 (908.6) 언어는 집단의 교제로부터 진화했고, 각 지역 집단은 의사를 소통하는 자체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언어는 손짓 · 표징, 외치는 소리와 흥내내는 소리, 억양, 그리고 후일의 알파벳을 소리내는 데 붙는 악센트를 통해서 성장했다. 언어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크고 가장 쓸모 있는, 생각에 쓰이는 연장이지만, 언어는 사회 집단들이 얼마큼 여가를 얻을 때까지 결코 번성하지 않았다. 말을 가지고 노는 성향은 새로운 낱말 — 속어 — 를 개발한다. 대다수가 그 속어를 채택하면, 관습은 그 속어가 언어가 되게 만든다. 한 가족 집단에서 사람들이 “아기 말투”에 빠지는 것은 지방 사투리의 기원을 설명한다.

81:6.18 (908.7) 언어가 다른 것은 평화를 연장시키는 데 항상 큰 장벽이었다. 지방 사투리를 정복하는 것은 한 민족 전체에, 한 대륙에서, 또는 전 세계에 한 문화를 보급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 보편적 언어는 평화를 촉진하고 문화를 보장하며 행복을 증진한다. 한 세상의 언어가 몇 개로 줄어든 때에도, 주도하는 문화 민족들이 이 언어들을 통달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平和)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81:6.19 (908.8) 국제어의 개발을 향하여 **유란시아**에서 진보가 거의 없었어도, 국제 상업 교류의 확립은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언어 · 무역 · 예술 · 과학, 경쟁 놀이, 또는 종교와 관련되는가에 상관없이, 이 모든 국제 관계가 육성되어야 한다.

81:6.20 (909.1) 7. 기계 장치의 효율성. 문명의 진보는 연장, 기계 및 분배 경로의 발달과 소유와 직접 관계된다. 개량된 연장, 정교하고 효율 있는 기계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무대에서 서로 다투는 집단들의 생존을 좌우한다.

81:6.21 (909.2) 초기 시절에 땅을 가는 데 적용된 유일한 에너지는 노동력이었다. 사람을 쓰지 않고 황소로 대신한 것은,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린 싸움이었다. 나중에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발전은 모조리 사회의 진보에 직접 기여했는데, 이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해방하기 때문이다.

81:6.22 (909.3) 지혜롭게 사용하면, 과학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큰 수단이 될지 모른다. 노동을 절약하는 새 종류의 기계가 너무 빨리 발명되는 결과로서 큰 집단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과도기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지혜로운 방법과 건전할 기술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에게만, 기계 시대가 재난으로 판명될 수 있다.

81:6.23 (909.4) 8. 햇불 쥔 자들의 인품. 사회의 유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있었고 문화와 지식의 총합에 무엇이랄도 이바지한 모든 사람의 어깨 위에 설 수 있게 만든다. 문화의 햇불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이 작업에서 가정은 늘 기본 제도가 될 것이다. 놀이와 사회 생활이 다음에 오며, 마지막이지만, 복잡하고 상당히 조직된 사회에서 똑같이 필수인 학교가 뒤따른다.

81:6.24 (909.5) 곤충은 일생을 위하여 완전히 교육받고 장비를 갖춘 채로 태어난다 — 정말로 아주 좁고 순전히 본능적 존재이다. 인간의 아기는 교육 없이 태어난다. 따라서 사람은 어린 세대를 교육하는 훈련에 고삐를 줌으로,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을 크게 수정할 힘을 소유한다.

81:6.25 (909.6) 문명의 증진과 문화의 전진에 이바지하는 20세기 최대의 영향력은, 세계 여행의 두드러진 증가와 통신 방법의 전례 없던 개선이다. 그러나 교육의 개선은 확대되는 사회 구조와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 윤리에 대한 현대의 이해도 더 순전히 지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을 따른 성장에 맞추어 발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영적 발전과 가정 제도의 보호 면에서 걸음을 멈춘 상태에 있다.

81:6.26 (909.7) 9. 종족의 이상. 한 세대의 이상(理想)은 바로 뒤잇는 후세를 위하여 운명의 경로를 개척한다. 사회에서 햇불을 켜 준 자들의 품질은 문명이 전진하는가 후퇴하는가를 좌우한다. 한 세대의 가정 · 교회 · 학교는 뒤잇는 세대의 인격의 경향을 미리 정해 준다. 한 종족이나 나라가 도덕적, 영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그 문명에서 문화의 속도를 대체로 결정한다.

81:6.27 (909.8) 이상은 사회적 흐름의 근원을 높인다. 그리고 어떤 흐름도, 압력이나 방향을 통제하는 무슨 기술이 이용된다 하더라도, 그 근원보다 조금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문화가 있는 문명의 가장 물질적 면을 추진하는 힘조차 사회의 성취 중에서 물질 성향이 가장 적은 곳에 거한다. 지능은 문명의 작용을 통제하고, 지혜는 이를 지휘할지 모르지만, 영적 이상을 찾는 것은 한 달성 수준에서 다음 수준까지 인간의 문화를 정말로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이다.

81:6.28 (910.1) 처음에, 인생은 존재하기 위한 싸움이였다. 인생은 이제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며, 다음에는 생각의 질을 높이는 싸움이 될 것이요, 이것은 앞으로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표이다.

81:6.29 (910.2) 10. 전문가의 조정. 초기에 노동의 분업으로, 나중에는 그에 따라 전문화한 결과로, 문명은 엄청나게 진보되었다. 문명은 이제 전문가들을 효과 있게 조정하는 데 달려 있다.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함께 모으는 어떤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81:6.30 (910.3) 사회 · 예술 · 기술 · 산업의 전문가는 줄곧 늘어나고, 기술과 숙달 면에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능력이 다양화되고 직업이 상이한 것은, 조정하고 협동하는 효과적 수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궁극에 인간 사회를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창의성과 전문화 능력을 가진 지능은, 발명이 급속히 성장하고 문화 팽창의 걸음이 빨라져 생기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적당한 방법을 고안하는 데 전적으로 유능할 것이다.

81:6.31 (910.4) 11. 일자리를 찾는 방책. 사회의 발전에서 다음 시대는, 항상 늘어나고 확대되는 전문화에 대하여 더 낮게, 더 효과 있는 협동과 조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노동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서, 개인을 적당한 일자리로 지도하는 어떤 기술이 고안되어야 한다.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민족들 사이에서, 기계는 실업(失業)을 낳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경제의 복잡성, 그리고 산업 및 직업의 전문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일자리 찾아주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81:6.32 (910.5) 사람을 일하도록 훈련하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또한 일자리를 찾는 효과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계를 잇는 상당히 특수화된 기술을 시민에게 훈련시키기 전에, 전문화된 일에서 잠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보통 노동·상업, 또는 직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떤 문명도 큰 실업자 계급을 오랫동안 지니고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최선의 시민조차 공공(公共) 금고에서 지원을 받음으로 비뚤어지고 사기(士氣)를 잃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베푸는 자선조차, 팔다리가 멀쩡한 시민에게 오래 베풀었을 때는 해독이 된다.

81:6.33 (910.6) 고도로 전문화된 그런 사회는 옛 민족들의 오래 된 공동체 및 봉건적 관습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많은 보통 서비스가 수궁할 만하게, 이롭게 사회화될 수 있는 것이 참말이지만, 총명하게 협동하는 어떤 기술로, 상당히 훈련 받고 극도로 전문화된 인간들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대화된 조정과 우호적 규제는, 더 낡은 원시 공산주의 방법이나 무력(武力)에 기초를 두고 독재로 규제하는 기구보다 더 오래 가는 협동을 낳을 것이다.

81:6.34 (910.7) 12. 기꺼이 협동하는 정신. 인간 사회의 진보에 하나의 큰 장애물은 큰 사회화된 인간 집단, 그리고 그보다 작고 반대 생각을 가진 단체, 즉 반사회적 생각을 가진 개별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반사회적 단체, 이 둘의 이익과 복지 사이에서 생기는 싸움이다.

81:6.35 (910.8) 교육 방법과 종교적 이상이, 높은 종류의 총명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국가의 문명도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부류의 총명한 애국심과 문화적 단결이 없으면,

모든 국가가 지방적 질투와 지역의 자체 이권의 결과로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81:6.36 (911.1) 세계적 문명을 유지하는 것은 평화와 친교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효과적 조정이 없이, 산업 문명은 지나친 전문화의 위험, 즉 단조로움과 편협, 그리고 불신과 질투를 기르는 성향으로 인하여 위태롭게 된다.

81:6.37 (911.2) 13.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지도층. 문명에는 많은 것, 허다한 것이, 열심히 효과 있게 짐을 끌어당기는 정신에 달려 있다. 큰 짐을 드는 데 열 사람은, 함께 — 모두가 같은 순간에 — 들지 않는다면, 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한 단체 작업 — 사회적 협동 — 은 지도층에 달려 있다. 지난날과 오늘날의 문화적 문명은, 시민이 지혜로운 진취적 지도자들과 영리하게 협동하는 데 기초를 두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까지, 문명은 지혜롭고 활력 있는 지도층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81:6.38 (911.3) 높은 문명은 물질적 부(富), 지적 위대함, 도덕적 가치, 사회적 재치, 우주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현명하게 상관시키는 데서 태어난다.

81:6.39 (911.4) 14. 사회의 변화. 사회는 신이 준 제도가 아니다. 사회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현상이다.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과학의 발전과 발걸음을 맞추는 데 필수인 사회 조직의 변화를 더디게 일으킬 때, 전진하는 문명은 반드시 늦어진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한 개념을 다만 진기하고 새롭다는 이유로 무조건 채택해서도 안 된다.

81:6.40 (911.5) 사람은 사회의 장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조절하는 이러한 모험은 반드시, 사회적 진화의 역사를 충분히 통달한 자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개혁자들은 고려하고 있는 사회 실험이나 경제 실험의 분야에서 실지로 체험을 가진 자들의 지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어떤 큰 사회의 변화나 경제의 변화도 갑자기 시도해서는 안 된다. 온갖 종류의 인간적 조정 — 물리적 · 사회적, 또는 경제적 조정 — 에는 시간이 필수이다. 오로지 도덕적 · 영적 조정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들조차 그 물질적 · 사회적 반응이 충분히 작용하는 데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문명이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시기에, 민족의 이상(理想)은 주요한 지지와 확신이 된다.

81:6.41 (911.6) 15. 과도기 붕괴의 예방. 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착오로 얻은 산물이다. 사회는 동물 수준에서 행성 지위를 가진 인간 수준까지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연속된 단계를 올라감으로 선택해서 조정하고, 거둬 조정하여 살아남은 것이다. 어떤 문명에서도 — 어느 한 순간에도 — 가장 큰 위험은 과거의 정착된 방법으로부터 새롭고 더 낫지만 실습해 보지 않은 미래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붕괴되는 위협이다.

81:6.42 (911.7) 지도층은 진보를 좌우한다. 지혜 · 통찰력 · 선견은 국가가 지속하는 데 필수이다. 유능한 지도층이 비로소 사라질 때까지 문명은 결코 정말로 위태롭지 않다.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의 수는 결코 인구의 1퍼센트를 넘은 적이 없다.

81:6.43 (911.8) 문명은 진화의 사다리에서 이 가로대를 딛고, 급속히 팽창하는 20세기의 문화를 낳은 힘찬 영향력이 개시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오로지 이 필수인 것들에 집착함으로, 사람은 오늘날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확실히 살아남도록 마련하면서, 그 문명을 유지하기를 바랄 수 있다.

81:6.44 (912.1) 이것이 **아담** 시절 이후로 문명을 세우려고 세상의 민족들이 겪은, 길고 긴 투쟁의 요점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 벅찬 진화에서 생긴 최종의 결과이다. 인쇄가 발견되기 전에는 진보가 비교적 느렸는데, 이는 한 세대가 앞 세대들의 업적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이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는 문명이 투쟁해 온, 지금까지의 세월 동안에 축적된 여세(餘勢)의 힘으로, 앞으로 돌진하고 있다.

81:6.45 (912.2)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후원하였다.]

[82]: 81:2.19 **페르샤** 만.

[83]: 81:6.11 여기서 man-land ratio 는 토지 면적당 인구를 말한다.
